

간호대학생의 권리 인식, 사회적 자기효능감,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과 불안이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재훈¹, 한다은¹, 차윤송¹, 김현정¹, 이은지¹, 임현아¹, 이현예², 정은영^{3*}

¹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²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생, ^{3*}청암대학교간호학과 교수

Rights Awareness, Social Self-Efficacy, and Anxiety and Self-Confidence with Clinical Decision-Making as Predictors of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ae-Hun Jeong¹, Da-Eun Han¹, Yoon-Song Cha¹, Hyeon-Jung Kim¹, Eun-Ji Lee¹, Hyun-Ah Lim¹, Hyun-Ye Lee², Eun-Young Jung^{3*}

^{1,3*}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Cheongam

²PhD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S시 C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는 기술 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상실습 권리 인식과 임상 의사결정 불안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임상실습 권리 인식, 사회적 자기효능감, 임상 의사결정 불안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8.3%였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해 권리 인식 교육, 사회적 자기효능감 강화, 임상 의사결정 불안 완화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examined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A total of 203 students from a nursing college in City S participated, complet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Clinical practice rights awareness and anxiety in clinical decision-making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practice satisfaction, whereas social self-efficacy and confidence in clinical decision-making demonstrated positive correlations. Multiple regression identified clinical practice rights awareness, social self-efficacy, and anxiety in clinical decision-making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xplaining 8.3% of the vari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enhance rights awareness, strengthen social self-efficacy, and reduce decision-making anxiety through improved educational and clinical training strategies.

Key Words , Clinical Competence, Educational Measurement, Learning, Psychological Distress, Student Nurses

*Corresponding Author : Eun-Young Jung(Cheonagm Univ)

Tel: +82-51-740-7230 email: 1130je@hanmail.net

Received October 12, 2025 Revised October 23, 2025, Accepted November 3, 2025

1. 서론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자신을 미래의 간호사로 인식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1].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효과적인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2]. 나아가 임상실습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간호역량을 강화하고,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교육과정이다[3]. 따라서 간호전문성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임상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개선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실습지도자의 피드백, 임상 환경의 물리적 안전성, 실습 시간과 내용의 적절성, 전공 만족도, 스트레스 대처 전략, 자존감 등이 있다[4,5]. 또한,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등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핵심 변수로 보고되었다[6,7]. 그러나, 최근에는 MZ세대의 세대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관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이 학습권, 사생활 보호, 안전 보장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한층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생 권리는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권리인식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실증 연구는 드물며, 국내의 경우 관련 권리 규정과 인식이 미흡하다[9]. 그 결과 학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학습자이자 간호 보조인력이라는 이중적 역할로 인해 권리 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10]. 실제 선행연구들을 보면,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무시와 비난, 과도한 업무요구 등에 노출되어 존엄성과 학습권이 침해되는 부당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11]. 실천적 필요성 측면에서,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된 환경은 양질의 임상교육과 학습 만족도를 위해 필수적이며 권리가 침해될 경우 학생들은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학습효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10].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목표나 과제에 도달하는 능력에 대한 기대 및 신념이라 정의할 수 있다[12]. 학생 때부터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미래 간호사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도 직결된다. 또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은 임상실습 중 낮은 환경에 위축되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습 만족도가 저하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며[13],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임상실습 만족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의사결정 자신감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를 선택해야 하는 간호사의 핵심 역량이다[14]. 임상의사결정 과정에서 높은 불안과 낮은 자신감 같은 정서적 요인이 주된 장벽으로 작용하며, 특히 불안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환자 상태 변화의 중요한 단서를 간과하게 만든다[15]. 임상의사결정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학습자의 자신감이 향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권리인식, 사회적 자기효능감, 임상의사결정 자신감과 불안,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이는 간호교육 현장의 질 향상과 권리 기반 실습 시스템 마련, MZ세대 맞춤형 교육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C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중 연구 목적과 방법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간호학과 학부장의 협조를 얻어 연구 목적, 연구 참여 방법, 개인 정보 보호 및 자발적 참여 원칙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편의 표집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크기(f^2) .15, 검정력($1-\beta$) .90을 적용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97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및 자료 누락이 있는 응답지를 제외한 최종 20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청암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IRB 승인번호: 25-HR-013-01/CA17-250617-HR-013-01), 연구 윤리기준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2.2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주요 변수는 빈도분석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기술통계로 제시하였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임상 실습 권리 인식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임상 실습 권리 인식은 황윤영과 박성희[17]가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권리 인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존중의 권리’ 6문항, ‘배움의 권리’ 4문항, ‘보호의 권리’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소 13점에서 최대 6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실습 권리 인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존중의 권리 .77, 배움의 권리 .78, 보호의 권리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존중의 권리 .79, 배움의 권리 .77, 보호의 권리 .74이었다.

2.3.2 사회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강한아[12]가 개발한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6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소 8점에서 최대 4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원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4였다.

2.3.3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과 불안

본 연구에서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과 불안은 White KA[14]가 개발한 '임상 의사결정: NASC-CDM© 도구'를 한국어판으로 수정·보완한 도구[18]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6문항으로 자신감(1~23번) 23문항, 불안(24~46번)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6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소 23점에서 최대 13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과 불안정도가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White KA[14]의 연구에서는 자신감 .98, 불안 .94 이었으며 Yu[18]의 연구에서는 자신감 .98, 불안 .9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자신감 .97, 불안 .94 이었다.

2.3.4 임상실습 만족도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는 조결자와 강현숙[19]가 개발하고, 이순희 등[20]가 수정·보완한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1문항이며 '실습교과' 3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최소 31점에서 최대 15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순희 등[20]이 수정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3. 연구결과

3.1 임상 실습 권리 인식, 사회적 자기효능감,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과 불안,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

임상 실습 권리 인식은 평균 2.84점(SD=0.44),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3.93점(SD=0.84),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은 평균 3.89점(SD=0.94), 임상 의사결정 불안은 평균 2.63점(SD=1.19),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 2.97점(SD=0.66)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이 임상 실습 권리 인식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중간 수준을 보이며,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불안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Table 1. Levels of Perceived Rights in Clinical Practice, Social Self-Efficacy, Confidence and Anxiety in Clinical Decision-Mak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among Nursing Students (N=203)

	Min	Max	Range
Perception of Rights in Clinical Practice	1.92	5.0	1-5
Social Self-Efficacy	2.00	5.75	1-6
Confidence in Clinical Decision-Making	2.00	5.96	1-6
Anxiety in Clinical Decision-Making	1.00	6.00	1-6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1.77	5.00	1-5

3.2 임상 실습 권리 인식, 사회적 자기효능감,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과 불안,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 간의 상관관계

임상 실습 권리 인식은 사회적 자기효능감($r=.191, p=.017$) 및 임상 의사결정 불안($r=.157, p=.05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실습 만족도($r=-.190, p=.017$)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r=.50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임상 의사결정 불안($r=-.177, p=.026$) 및 임상실습 만족도($r=.161, p=.044$)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은 임상실습 만족도($r=.173, p=.030$)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임상 의사결정 불안은 임상실습 만족도($r=-.222, p=.005$)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Table 3. Correlations Among Perceived Rights in Clinical Practice, Social Self-Efficacy, Clin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Anxiety,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among Nursing Students (N=203)

Variables	Perceived Rights in Clinical Practice r(p)	Social Self-Efficacy r(p)	Clin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r(p)	Clinical Decision-Making Anxiety r(p)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r(p)
Perceived Rights in Clinical Practice	1	.191(.017) *	.036(.653)	.157(.050)	-.190(.017) *
Social Self-Efficacy	.191(.017) *	1	.503(.000) * * *	-.177(.026) *	.161(.044) *
Clin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036(.653)	.503(.000) * * *	1		.173(.030) *
Clinical Decision-Making Anxiety	.157(.050)	-.177(.026) *	-.365(.000) * * * *	1	-.222(.005) * * *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190(.017) *	-.222(.005) * * *	.173(.030) *	-.222(.005) * *	1

*p<0.05,**p<0.01, ***p<0.001.

3.3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유의하였으며($F=5.714$, $p=.001$), 수정 결정계수는 $R^2=.083$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고, Durbin-Watson 값은 1.604로 자기상관의 문제도 없었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임상 실습 권리 인식($\beta=-.197$, $p=.014$), 사회적 자기효능감($\beta=.170$, $p=.035$), 임상 의사결정 불안($\beta=-.161$, $p=.045$)으로 나타났다. 즉, 임상 실습 권리 인식과 임상 의사결정 불안이 낮을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임상 실습 권리 인식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임상 실습 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3).

Table 4.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N=203)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52	.390	-	9.038	.000
Perceived Rights in Clinical Practice	-.295	.119	-.197 *	-2.478	.014
Social Self-Efficacy	.135	.063	.170 *	2.132	.035
Clinical Decision-Making Anxiety	-0.90	0.45	-.161 *	-2.025	.045

Durbin Watson 1.604, $F=5.714$ **, $p=.001$ $R^2=0.83$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권리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 실습 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9]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할 경우 좌절감과 소외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연구[10]와는 일치한다.

이는 임상 실습 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실제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권리 보장의 부족과의 괴리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 정서가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임상 실습을 경험하고 있는 MZ세대 간호대학생은 실습 현장에서 기대하는 권리 보장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무력감이나 실망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21,22]. 이러한 인식은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권리 인식 향상과 실제 실습 현장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간호학생협회는 간호학생 권리 및 책임 선언문을 통해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이 학생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8], 국내 간호교육계 또한 이에 부응하여 학생 권리 인식 교육과 실습환경 개선 강화와 학생 권리 보장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실습기관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통해 간호학생의 환자 권리 인식이 증진됨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23,24]를 통해 간호학생의 권리 향상과 권리 옹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7,13,25]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실습 환경에 만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은 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의료직종과의 협업,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 복합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대인관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러한 신념은 실습 적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의사소통 훈련, 팀 기반 학습,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의 교육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임상현장에서 교수자나 의료진,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임상실습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과 불안이 임상실습 만족도와 각각 상반된 방향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임상 의사결정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적 판단력과 정서적 반응이 임상실습 경험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임상 의사결정 불안은 임상실습 만족도를 낮추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임상 의사결정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이 실습 상황에서 위축되고 학습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의사결정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18]. 간호대학생이 임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판단력 저하 및 임상 중재의 적절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불안과 만족도 간의 부적 관계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며, 임상실습 중 정서적 안정과 불안 완화를 위한 교육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임상 의사결정 자신감과 불안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관련 문헌은 임상상황에서의 불안과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 연구[18]와 일부 단면적 조사연구[26]에 제한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기존의 선행연구와 광범위하게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서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 성과 및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 임상실습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임상실습 권리 인식과 임상 의사결정 불안은 실습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권리 보장, 심리·

정서적 안정, 대인관계 및 실무적 역량 강화가 임상실습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특히 임상실습 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점은, 학생이 기대하는 실습권과 실제 현장에서 제공받는 경험 간의 불일치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는 현재의 임상실습 구조가 학생 중심적 관점에서 여전히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임상실습의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임상실습 권리 인식이 실습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층적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현장에서의 경험·기대·권리 간의 불일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 탐색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권리 기반의 실습 환경 개선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환경적·조직적 요인, 실습지도자 요인, 실습기관 특성 등을 포함한 확장된 모형 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층적 구조방정식모형(SEM) 등 복합 변인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임상 의사결정 불안 등 심리·정서적 요인의 변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지속·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가 필요하다. 이는 단기 교육효과의 검증은 넘어, 임상역량 발달 과정 전체를 설명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 또는 중재 연구가 요구된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불안 완화 프로그램, 권리 인식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적 효과를 검증한다면 실습교육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향상과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연구들이 이러한 제언을 기반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개선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 Hamilton, F. Kitsell, K. MacPherson, P. Stratford, C. Williams, H. Webb,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in allied health: A systematic review with narrative synthesis, *Teach Learn Med*, (2023), Vol.35, No.1, pp.97–113.

DOI: 10.1080/10401334.2023.2290608

- [2] J. Yoon, K. J. Kim, M. S. Choi, The effects of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2013), Vol.19, No.2, pp.273–284.
DOI: 10.5977/jkasne.2013.19.2.273
- [3] S. J. Hwang, Relationship among clinical practice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6), Vol.12, No.2, pp.205–213.
- [4]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5), Vol.11, No.1, pp.98–106.
- [5] S. H. Lee, M. H. Park, E. J. Lim,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004), Vol.34, No.6, pp.1021–1029.
- [6] J. Y. Hong, J. A. Park, Factors influencing metacogni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idence in the perform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7), Vol.23, No.2, pp.187–194. DOI: 10.5977/jkasne.2019.25.4.448
- [7]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2011), Vol.17, No.2, pp.216–225. DOI: 10.11111/jkana.2011.17.2.216
- [8] National Student Nurses Association, *NSNA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or Students of Nursing*, NSNA, (2019).
- [9] S. H. Park, H. Y. Cho, Experiences of perception of nursing students' rights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Public Health Nurs*, (2023), Vol.37, No.4, pp.523–534.
- [10] S. H. Park, M. Y. Choi, Experiences of perception of nursing students' rights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9), Vol.25, No.4, pp.471–483. DOI: 10.5977/jkasne.2019.25.4.471

- [11] S. H. Park, M. Y. Choi,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Nursing Students' Rights Awareness Scale in clinical practice: A scale development study,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21), Vol.27, No.4, pp.429-442. DOI: 10.3390/healthcare9101323
- [12] H. A. Ka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al self-efficacy scale,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Thesis, (2012).
- [13] H. O. Jeo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ocial self-efficac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6), Vol.22, No.2, pp.171-181. DOI: 10.5977/jkasne.2016.22.2.171
- [14] K. A. Whit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ool to measure self-confidence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decision making, *J Nurs Educ*, (2011), Vol.50, No.1, pp.23-29. DOI: 10.3928/01484834-20131118-05
- [15] Y. A. Song, M. Kim, Effects of a virtual reality simulation integrated with problem-based learning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efficacy: A non-randomized trial,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23), Vol.29, No.3, pp.229-238. DOI: 10.4069/kjwhn.2023.09.12
- [16] D. Medel, T. Cemeli, E. Miró, Clinical decision making: Validation of the nursing anxiety and self-confidence with clinical decision making scale into Spanish, *BMC Nurs*, (2024), Vol.23, No.265. DOI: 10.1186/s12912-024-01917-w
- [17] Y. Hwang, S. H. Park, The development of a rights awareness scale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23), Vol.27, No.4, pp.429-442. DOI: 10.37727/jkdas.2023.25.4.1483
- [18] M. Yu, Y. Eun, K. A. White, G. Kang,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Nursing Students' Anxiety and Self-Confidence with Clinical Decision Making Scale, *J Korean Acad Nurs*, (2019), Vol.49, No.4, pp.411-422. DOI: 10.4040/jkan.2019.49.4.411
- [19] G. J. Jo, H. S. Kang, Development of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ol

-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1984), Vol.14, No.6, pp.1021-1029.
- [20] S. H. Lee, S. Y. Kim, J. A. Kim,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ion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004), Vol.34, No.6, pp.1021-1029.
- [21] H. Cho, M. Kwon,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peer support and resilience, J Muscle Joint Health, (2024), Vol.31, No.2, pp.155-164. DOI: 10.5953/JMJH.2024.31.3.220
- [22] H. S. Lee, H. Choi,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empathy, child rights awareness, and child abuse awareness on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22), Vol.28, No.4, pp.451-460. DOI: 10.5977/jkasne.2024.30.1.61
- [23] J. H. Shin, Experiences of ethical issues and needs for ethics education in clinical nurses, J Korean Med Ethics Soc, (2015), Vol.18, No.3, pp.299-315. DOI: 10.11111/jkana.2015.21.3.327
- [24] M. Y. Han, S. K. Sohn, Experience in nursing unit management among first-line nurse managers, J Korean Acad Nurs Adm, (2021), Vol.27, No.3, pp.138-151. DOI: 10.11111/jkana.2021.27.3.138
- [25] M. Jeon,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 Converg Inf Technol, (2021), Vol.11, No.12, pp.272-277. DOI: 10.22156/CS4SMB.2021.11.07.272
- [26] E. H. Jang, The influence of metacognition and decision-making type on self-confidence and anxiety with clinical decision making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22), Vol.28, No.4, pp.473-482. DOI: 10.22251/jlcci.2022.22.23.253